

# 유황불 아니더라도 지옥은 가까운 곳에 있다

##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관광

김태권 지음



몇 년 전부터 유행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다. '지옥의 나라'라는 뜻이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헬조선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다. 우울한 한국, 우울한 세상은 우리시대에 보편화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헬'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북유럽신화에 등장하는 단어로 지옥을 뜻한다.

불지옥은 종교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불교에서는 죄인을 굶는 쇠뿔에 집어넣는 지옥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유황불에서 지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옥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피렌체 편', '불편한 미술관'을 쓴 김태권 작가는 "지옥에 가면 우리는 세입자가 될 것이다. 사탄이 그곳의 관리인 또는 건물주"라고 상상한다.

인류가 수천 년간 상상해온 온갖 지옥들을 소개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아니 흥미를 넘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살아생전 떠나는 지옥관광'은 지옥의 이모저모가 궁금한 이들에게는 컷가 솔깃해지는 책이다.

저자는 고전문학, 회화, 신화를 횡단하며 지옥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편다. 인간이 오랫동안 상상해온 온갖 지옥들이 펼쳐진다.

사실 지옥의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것은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대개 비슷하게 자리잡고



피터르 브뤼헬의 '반역한 천사의 추락' (왼쪽)과 아반 데어 스트라트의 '신곡'의 삽화.



<한겨레출판 제공>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옥을 뜻하는 '헬'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을까. 북유럽 신화에서 헬은 여신의 이름인 동시에 여신이 다스리는 저승의 이름이기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옛적 북유럽 사람들은 헬 또는 헬헤임을 지옥으로 여겼는데, 이곳의 다른 이름은 '니플헤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안개가 낀 스산한 땅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옥은 뜨거운 곳으로 인식됐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설 새 없이 불이 타오르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팔레스타인이나 아라비아반도나 더운 지역인데 "사람들이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 믿었다는 사실이 단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신화에서 지옥 여행의 원조는 오디세우스다. 그러나 단테의 '신곡'에도 불지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지옥 외곽의 죄인보다는 무거운 죄를, 열을 지옥에 가는 죄인보다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다. 그런데 불지옥 깊은 곳에 오디세우스가 있다. 그리스신

화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 말이다. 단테와 단테의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는 지옥 여행을 하다가 오디세우스를 만난다."

가장 잔인한 형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시포스다. 시시포스가 벌을 받는 언덕은 그리스 신화 지옥 투어에서 가장 유명하다.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에는 시시포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가 실종되는데,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사모해 데려갔다고 하늘의 비밀을 누설한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시시포스는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올려야 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상이다. 저자는 "지옥 없는 천국은 천국 없는 지옥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천국이 천국다운려면 지옥이 있어야 하나 보라. 그렇다면 지옥을 닮은 현세도 흑시 천국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한다. <한겨레출판·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2014년 귀촌해 농촌에서 돼지가 자라는 환경을 보고 채식주의를 결심했다는 저자 이동호가 동물 키우기를 키우고 먹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카카오톡 글쓰기 플랫폼 '제8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으로 저자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인간과 인간이 먹는 동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창비·1만5000원>

▲로비스트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로비스트는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산업에 연루된 과학자, 기업과 결탁하는 정부, 활동 규제 대상과 긴밀한 규제기관 등 여러 요인들은 이리저리 얽혀 정글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 저널 르몽드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자 스테판 오렐은 로비스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의혹을 생산하는지 밝힌다. <돌베개·2만5000원>

▲불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지난 2017년 창비신인시인상을 받은 최지은의 첫 번째 시집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을 애잔한 노래로 풀어낸다. 시인은 마흔일곱 편의 시를 하나의 긴 시처럼 받아들이며 썼다고 한다. 시적 화자는 애도와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과 어둠을 생의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 <창비·9000원>

▲수학은 과학의 시다=프랑스의 수학자인 저자 세드리크 빌라니가 전하는 수학의 아름다움에 관한 에세이다. 저자는 시와 수학이 우리의 주변 세계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말한다. 또 시인이 평범한 대상들에서 뜻밖의 의미를 찾아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하듯, 수학자도 복잡한 현실 세계를 수식으로 새롭게 밝혀내는 '과학의 시인'이라고 주장한다. <글리·1만2000원>



▲수학은 과학의 시다=프랑스의 수학자인 저자 세드리크 빌라니가 전하는 수학의 아름다움에 관한 에세이다. 저자는 시와 수학이 우리의 주변 세계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말한다. 또 시인이 평범한 대상들에서 뜻밖의 의미를 찾아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하듯, 수학자도 복잡한 현실 세계를 수식으로 새롭게 밝혀내는 '과학의 시인'이라고 주장한다. <글리·1만2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람 선생님과 도토리 약국=다람쥐인 람 선생님은 도토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그는 도토리를 활용해 온갖 약을 발명하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준다. 아울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아픈 동물들을 치유한다. 저자 윤선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은 상처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바람의아이들·1만2000원>

▲지구는 고양이들이 지킨다=동물과 공존을 주제로 한 어린이 SF 소설 시리즈 '개와 고양이의 시간' 두 번째 책이다. 눈높이 아동문학상 단편 동화 부문 대상을 받으며 등단한 박정안 작가가 2018년 일어난 '대전 동물원 탈출' 피사

사건'을 계기로 썼다. 동물과의 공존을 거부한 미래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양이들과 그들을 뒤쫓거나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씨드북·1만2000원>

▲우리 용호동에서 만나=은종일 벤치에 누워 경치를 감상하는 아저씨, 장막에서 카페 안을 훑어지게 바라보는 할머니, 사람들 몰래 벽에 그림을 그리는 청년 등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정한 용호동 이웃이 함께 기대며 살아가는 여섯 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재개발 바람이 부는 용호동의 풍경과 그림에도 따스한 이웃들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한 김선진 화가의 그림은 글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창비·1만800원>

# 작지만 풍요로운... 10명의 여성 작가가 전하는 '집 사용 설명서'

##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림 외 9인 지음



그 어느 때보다 '집'이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온 요즘이다. 재택 근무자들에게는 아예 집이 직장이기도하고, 약속이나 주말 나들이 등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과 좀 더 친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집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나의 작은 집에서 경험하는 크고 안전한 기쁨에 대하여'는 집을 재미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집에서의 생활을 살뜰히 챙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 번역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10

명의 여성 작가가 전하는 '나의 집 사용 설명서'는 참고할 만한 팁들을 전해주고, 거창할 것 없는 소소한 내용들이지만, 무릎을 치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 풍요로운 집 생활의 즐거운 길라잡이가 된다.

문구류를 좋아해서 '문구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양한 글을 쓰는 김규림은 '집순이'가 된 후 네모난 공간에도 매일의 기분과 표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집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집과 한몸이 된 듯 생활하며 집에서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어갈 무렵 팬데믹이 닥쳤을 때 그는 지인들을 위해 35가지 작은 팁과 노하우를 모아 '집에서 혼자 노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PDF 파일을 작성 배포했다. 소품 위치 바꾸기, 집에 어울리는 음악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등이 담겼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중 집안에 '노와이피존'을 만드는 것은 쉽게 실행해 볼만하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아날로그 공간을 만들어 외부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고요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대화하는 시간도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야생성 정리광 소녀' 시절을 거쳐 친구들 이사하는 집에 가서 입주정소 수준으로 집 청소와 정리를 해주는 브랜드 디렉터 김희정은 '집을 브랜드링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집은 누군가에게 그 자신이고 위로이고 소용이고 동굴이고 즐거움"인데 집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려면 결국 '나'를 알아야 한다. '집 브랜드링'은 집을 이리저리러한 콘셉트로 꾸미는 게 아니라, 다 털어내고 집과 나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남 몰래 채워온 취향과 수집의 역사에 주목해 보면 '나'를 찾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면서 글도 쓰는 봉현은 집에서 '일의 틈새에 생활을 끼여넣어'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정신적인 환기와 몸의 리프레시도 찾는다고 말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임진아는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고 싶다'가 아닌 '다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다고 적었다. <세미콜론·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